

수 있다. 그렇다면, 「가현산곡」의 작자는 이렇듯 전국적인 유명세를 지녔다고 할 수는 없는 일개 작은 산을 대상으로 가사를 지을 만큼 해당 지역과 문화권에 대한 남다른 연고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 당연한 논리적 귀결일 것이다.

불행히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작가의 정보가 없어 단언할 수 없으나, 앞서 여러 측면에서 상촌에의 영향을 받은 특징들로 비추어 볼 때, 아마도 상촌의 후손 중에 누군가가 상촌에 가탁해 지은 작품이 가전(家傳)으로 전해지고, 그것이 『고비유적』에까지 필사된 것이 아닌가 짐작해볼 따름이다. 이런 짐작을 뒤로 한 채, 작품 내부를 들여다보면 다음과 같다.

「가현산곡」의 전체 내용은 크게 다섯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가장 먼저 가현산에 들어와 살게 된 감회를 서사에 해당하는 부분에 술회하고, 이후 봄·여름·가을·겨울의 사계절에 따라 변해가는 산의 풍경을, 그리고 마지막에는 산 속에 들어와 세월을 보내고 있는 화자의 시름을 노래하고 있다. 가현산이라는 공간 속에서의 은거 생활을 다룬 고전 작품 중에는 상촌의 소품문인 「야언」(野言)¹⁸⁾이 대표적이지만, 이 글에서는 장르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그의 한시들에 집중해 일부를 대비해 보도록 하겠다. 우선 도입부에 해당하는 대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현산 쇼동턴의 혼자 선논 이 사름이
 황냥이 다 니그니 긴 쑤을 썩듯던가
 오궁의 화괴흐니 연소의 붓돈던가
 료료 강상촌의 므스 일로 도라와셔
 연하를 의지흐고 미록을 벗삼는다
 인간을 썩나니 이몸이 한가흐샤
 청녀당 빗기 잡고 학창포 니미초고

18) 신희(2008), 『신편국역상촌신희문집』 6, 민족문화추진회, 한국학술정보 pp. 211-220.

남계 2는 길로 동학을 츠자가니
 동능과디는 이거시 거기로다
 현애에 집을 빗고 간슈로 모솔 삼아
 수묘 원님이 평야를 구벼보니
 용슬이 유여거니 광하를 부릴소나
 텃마는 더괴 잇고 화악은 알피 빈다
 낭경형승이 안더의 버러세라
 위슈종남을 뉘라서 머단말고
 던려의 이리움이 성은이 그지업다
 한둥의 일이 업서 당구로 쇼일흐니
 텃괴인스는 오논듯 디나간다

도입 부분에 근거하여 판단해보면, 화자는 그간의 부귀영화를 모두 떨치고 인간사와 멀리 하여 가현산에 들어온 인물로 생각된다. 특히 도가에서 전해오는 36개 동부(洞府) 중의 첫 번째 왕옥산(王屋山)의 동부를 일컫는 ‘소동천’(小洞天), 중국 전기소설인 『침중기』(枕中記) 속에 나오는 황량(黃梁) 고사 등 도교적 색채가 강한 소재들을 활용하여 작품을 창작한 것으로 볼 때, 화자는 현재 속세를 떠나 도가적 세계관에 상당 부분 의탁해 삶을 영위해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 이러한 화자의 입장은 마지막으로 “던려의 이리움이 성은이 그지업다/ 한둥의 일이 업서 당구로 쇼일흐니/ 텃괴인스는 오논듯 디나간다”와 같은 구절에서 드러나듯, 한가한 전려(田廬)에 돌아와 살면서도 성은에 감사하는 태도를 통해 그가 원래 관계에 몸담았다가 귀양을 왔거나 귀전(歸田)하였을 것임이 더욱 명확해진다.

그런데 이 도입부분은 우연찮게도 상촌 신희의 칠언고시 중 『방가행』(放歌行)¹⁹⁾과 표현의 방식에 있어서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은 점이 발견된다. 해당 부분을 일부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19) 신희(2008), 『신편국역상촌신희문집』 1, 민족문화추진회 편, 한국학술정보, pp. 39-41.

<u>가현산 아래 조그마한 동천에</u>	<u>歌絃山下小洞天</u>
<u>속인도 아니요 신선도 아닌 나그네가 있어</u>	<u>客非俗還非仙</u>
어린 나이에 뛰어난 기가 운연을 능가하여	弱齡逸氣凌雲煙
매마와 말 머리 나란히 하여 앞뒤를 다투며	枚馬齊鑣相後先
태평한 세월에 마음대로 재능 날렸노니	太平風月恣蹠躡
<u>지금도 선조대왕 연간이 생각나누나</u>	<u>至今尙憶宣王年</u>
<u>부드러운 붓 손에 쥐고 글 척척 써내고</u>	<u>柔毫擲罷寫巒牋</u>
<u>맑은 낮 옥당의 화려한 자리에 취하기도 하며</u>	<u>玉堂晴晝酣華筵</u>
<u>임금님 술 내리시니 성상의 은혜 두터웠고</u>	<u>黃封敕賜聖恩偏</u>
<u>풍채 뛰어나 남들이 전에 없었다 말들했네</u>	<u>龍光共說曾無前</u>
갑자기 어느 날 임금님 승하하시매	荊湖一夕弓劍捐
벽해가 상전 되고 세상이 크게 변천하여	海波揚塵時世遷
<u>오궁에 불이 나매 제비 집 따라서 타고</u>	<u>吳宮火起燕巢燃</u>
<u>초나라 굴원도 소상강 가로 쫓겨나니</u>	<u>楚客亦放湘江邊</u>
<u>소상강 봄빛이 갑절이나 가련하여라</u>	<u>湘江春色倍{可憐</u>

일단 표현에 있어 ‘가현산 소동천’으로 시작하는 도입은 가사와 한시가 일치한다. 그리고 가사에서 ‘혼자 선는 이 사람이’로 화자를 드러내었는데, 한시에서는 ‘속인도 아니요 신선도 아닌 나그네’(有客非俗還非仙)로 화자를 밝히고 있다. 또 가사에서 3행에 이어지는 ‘오궁의 화곡하니 연소의 붓돈던가’라는 구절은 한시에서는 ‘오궁에 불이 나매 제비 집 따라서 타고’(吳宮火起燕巢燃)으로 되어 있는 점이 공통된다. 『월절서』(越絶書) 『외전기』(外傳記)의 ‘오지전’(吳地傳)에는 “오나라의 서궁은 장추(長秋)에 있는데, 주위가 1리 26보이다. 진나라 시황제 11년에 궁궐을 지키던 사람이 제비를 보기 위해 불을 비추어 보다가 실수로 불을 내 제비집이 타버렸다”²⁰⁾라고 하였는데, 이로 인해 이 고사는 무고한 사람이 억

20) “外傳記吳地傳：東宮周一裏二百七十步。路西宮在長秋，周一裏二十六步。秦始皇帝十一年，守宮者照燕失火，燒之”

울한 일을 당하는 상황을 상징하는 비유로 종종 사용되곤 하였다. 특히 상촌의 경우, 이러한 표현을 「방가행」 뿐만 아니라 그의 「감지정상량문」(坎止亭上梁文)에서도 “어찌 오연(吳燕)의 둥우리가 불에 탈 줄 알았으랴”(那知吳燕之焚巢)라고 하여 비슷한 방식으로 즐겨 쓰고 있는데, 이와 같은 용사(用事)의 활용은 한국고전종합 DB를 통해 조사해보면 다른 문인보다 유독 상촌이 작품에서 즐겨 쓰던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가현산곡」의 화자는 환해(宦海)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여 가현산으로 돌아온 인물로 비정되며, 좀 더 구체적으로 김포 지역에서 유명했던 인물을 떠올려 보자면, 상촌 신희의 방축 생활을 모티프로 삼아 창작된 것이 아닐까 추측해 보게 된다.

뿐만 아니라, 가현산곡의 초반 시상(詩想) 전개방식은 「방가행」(放歌行)과 다소 공통점을 보인다. 특히 「방가행」(放歌行)에서 과거 성상에게 은혜를 받던 시절을 그리워하는 부분이나, ‘오궁화기연소연’(吳宮火起燕巢燃)의 상황과 흡사하게 억울한 일을 당해 현재 가현산에 돌아와 ‘연하(煙霞)와 미록(麋鹿)’에 의지하는 자신의 모습 속에서도 임금의 은혜를 칭송한 「가현산곡」(歌絃山曲)의 시상 전개(“던려의 이리움이 성은이 그 지업다”)에는 흡사한 면이 엿보인다.

이와 같은 도입 이후에는 사계절의 변화에 따른 가현산의 풍경을 노래 하였는데, 이를 계절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흐르밤 비온 후에 물식이 달라디니
 암화논 반만 띄고 곡도논 우러네니
 산가의 물근 마시 일마다 다 이세라
 송님의 깃산하고 다명의 연헐헐니
 유선일침에 오몽이 니기드러
 희황상세를 흐마흐면 보리로다

“흐르밤 비온 후에 물식이 달라디니”라는 표현을 통해 봄비가 내린 후 자연의 정경이 새로 변화되는 모습을 감지하게 된다. 암화(巖花)가 반만 피었다는 구절을 통해 아직 봄이 완전하지는 않음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춘사 후반의 “송님의 직산하고~” 구절은 김천택의 시조 작품을 그대로 인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참고로 해당 시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松林에 客散하고 茶鼎에 烟歇커늘
遊山一枕에 午夢을 느지 썬니
어즈버 羲皇上世를 다시 본 듯 흐여라

金天澤, 『瓶歌』 491, 二數大葉.

이 작품의 작가는 김천택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역대시조전서』에 의하면 『병가』²¹⁾와 『해주』 이외에는 실린 곳이 없는 형편인데, 그나마 『해주』가 1909년 박경과 주시경이 발문을 붙인 필사본인데다가, ‘건·곤’ 2부 중 ‘건’ 부분만 남아 원본성이 약한 점을 감안한다면 이 작품은 『병가』 이후에는 별로 유행하지 못한 작품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 작품이 「가현산곡」에 반영되었다는 것은, 「가현산곡」의 작자가 당대의 시조 및 가사 향유에 두루 조예가 깊었던 인물임을 보여주는 한 증거라고 생각된다.

한편 봄철의 꿈에 선인과 같이 놀던(遊仙一枕) 화자가 희황상세(羲皇上世)의 태평시절을 구가하는 사이에 시간은 어느덧 여름으로 접어든다.

잉용연로호야 절셔도 수이간다
경님요초논 동구의 줍겨저든
빅척고루에 혼자 비겨 누어시니
만리당풍이 슈함을 부러세라

21) 『병와가곡집』과 『해동가요』(주씨본). 이하 『병가』와 『해주』로 약칭함.

세상 삼복을 뚝단 말 모를로다

화자는 여름 철새인 꾀꼬리의 소리를 통해 계절 변화의 감각을 이끌어 내면서도 한편 “절셔도 수이 간다”라는 구절을 통해 자신의 생활이 처해 있는 상황을 넘어서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시간의 변화를 사회적 감각이 아닌, 자연의 감각으로 체득하는 인간의 삶은 그만큼 사회적 상황과 거리를 두고 있는 자의 것일 수밖에 없다. 이것은 어찌 보면 자연적 시간 감각의 체득이자 동시에 사회적 시간으로부터의 단절이다. 그리고 이러한 단절감은 시간뿐만 아니라 공간감각으로도 이어진다. ‘경림요초’(瓊林妖草) 즉 기이한 숲과 아리따운 풀들은 언덕에 잠겨있고, 그 숲과 풀의 향내를 맡으며 높은 누대에서 만리장풍을 느끼는 중에 나온 “세상 삼복을 뚝단 말 모를로다”라는 발화는 곧 단순히 더위를 모를 곳이라는 표현을 넘어서서 세상 공간으로부터의 단절감이자 지극히 개인적 자족감의 표현으로 이해된다.

뉴형이 당의 잇고 실솔이 상에 드니
 경오논 쏘 엇디 일엽이 디뎛던고
 지란은 므스일로 공곡에 나 인느고
 청향을 가졌거니 서리를 두릴소냐

한편 인용문의 반딧불은 예로부터 가을날의 쓸쓸함을 드러내는 소재로 문인들에게 빈번히 활용되어 왔다. 일찌기 남공철(南公轍)은 그의 「추형부」(秋螢賦)에서 가을날 밤에 반딧불로 독서하는 감회를 읊기도 하였는데, 이를 통해 선비의 문자향(文字香)과 가을날의 쓸쓸한 정경을 동시에 드러내는 소재로 적절하게 기능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가현산곡」의 하사(夏辭)에도 반딧불이 활용된 것으로 생각되며, 실솔(蟋蟀) 역시도 마찬가지이다. 굳이 『시경』(詩經) 「당풍」(唐風)의 ‘실솔’(蟋蟀)

螭)에서 “집안에 귀뚜라미 한 해도 저물어간다”(蟋蟀在堂 歲聿其莫)라고 하여 귀뚜라미를 가을을 상징하는 의상의 대표로 삼은 것을 거론치 않더라도, 우리 문학 중 허난설헌의 「규원가」 중에도 “가을들 방에 들고 실솔이 상에 울제”라 하여 가을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규방에서 쓸쓸히 지내는 자신의 울적한 심회를 토로한 바 있다. 더구나 밤은 고사하고 대낮에 떨어지는 낙엽 한 잎을 바라보며 그 쓸쓸한 감회는 더욱 심화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막한 골짜기에 핀 지란(芝蘭)은 천지만물의 쇠잔(衰殘)에 굴하지 않고 청향(清香)을 곳곳하게 퍼뜨리고 있다. 따라서 하사(夏辭)에서는 전체적으로 가을날의 쓸쓸한 풍경과, 이에 대조되는 지란(芝蘭)의 향기로운 품을 통해 속세와 담을 쌓은 가현산의 골짜기에서도 스스로 맑은 인품을 지닌 화자 자신을 비유적으로 형상화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나 이 부분은 굴원의 「이소」(離騷)에서 다음 대목을 떠올리게 한다.

난초와 백지는 변하여서 향기를 잃었고, 전초와 혜초 같은 향초는 변하여서 락풀이 되었도다. 어찌하여 지난날의 향기로운 풀이 오늘에 썩풀 따위로 되었단 말인가? 어찌 다른 까닭이 있으리오? 바른 도리를 좋아하지 아니하는 때문일세.²²⁾

바로 이와 같은 표현을 통해 비록 가현산에 들어와 속세와 담을 쌓고 있을지라도 자신이 지키는 바른 도리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확신하는 화자의 태도를 파악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현동이 치워오니 빅설이 비치로다
 뉘님을 늦게 디고 토로틀 고초뛰여
 보압경훈이 일실에 자자시니

22) 유성준 편저(2002), 『초사』, 문이재. p. 32. “蘭芷變而不芳兮，荃蕙化而爲茅，何昔日之芳草兮，今直爲此蕭艾也，豈其有他故兮，莫好脩之害也.”

대디양춘을 이몸이 혼자듣듯
스시를 다 디내니 이거시 고금이라
일월 십이회를 안지셔 알리로다

한편 서리가 내린 후 겨울이 되어 날씨가 추워지자 중렴(中簾)을 치고 토로(土爐)를 지피며, 보압(寶鴨) 향로에 향을 피우자 향훈(香薰)이 방안 가득 피어난다. 그 훈기와 향기를 느낀 화자는 한 겨울에도 대지의 양춘을 받아들이는 듯하며, 일년 사시 열두 달을 산 속에 들어앉아서도 자연을 통해 더불어 알아가는 것이다.

이처럼 짧은 분량의 발화만으로도 화자는 가현산에서 지내는 자신의 사시(四時)를 표현하며, 이는 곧 사회적 시·공간과 단절되어 자연의 시간에 따라 살아가는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기 위한 기본적 배경으로 기능한다. 그러나 이렇듯 폐쇄된 사회적 시간 속에서도 화자는 더 큰 자연의 시간을 앗은 채로 느끼며, 한편으로 자연의 시간 앞에서 인간이 만들어 낸 역사적 시간이 얼마나 짧고 무의미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준다. 그것은 바로 다음의 구절을 통해서 파악된다.

삼황오데를 고틈어더 볼거이고
턴하위동이 글에만 스여인닉
한당송원은 작화의 미광이라
현인 근즈 들히 스이논듯 물러가니
스업이 머엇시료 지스의 혼이로다

화자는 태평성대로 표상되는 삼황오제 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 있기를 희망하지만, ‘천하위동’(天下爲同)의 평화로운 세계는 이미 책 속에나 있을 뿐이며, 한·당·송·원과 같이 명멸을 반복하는 국가의 탄생과 소멸은 그저 햇불의 희미한 불빛에 지나지 않을 따름이다. 성인이 사라지고

없는 세상에서 유가(儒家)로서 태평성대를 구현하고자 하는 소망을 이룰 길이 없다고 느낀 화자에게는 뭔가 새로이 눈을 돌릴 대안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어서 찾아낸 것이 바로 ‘선천역’(先天易)의 세계라고 할 수 있다.

믿음의 마준 글월 어디야 잇단말고
 선턴 녹십스괘 이밖의 쏘 잇는가
 안시 쳐순하니 간곳마다 내 싸히라
 낙턴디명을 즈연이 흐리로다
 현상이 외물이라 통육이 괴 뜨었고
 명심달관하니 광검이 슈위로다
 턴디 삼긴 후에 인물도 만컨마는
 이제와 칭각거든 텨흐느니 언머치오
 역려건곤에 시름이 반이로다

방축된 상황 속에서 화자에게 위안이 되어주는 것은 바로 『주역』이다. 그런데 “믿음의 마준 글월 어디야 잇단말고/ 선턴 녹십스괘 이밖의 쏘 잇는가”라는 구절을 통해 볼 때, 화자가 주역에 대해 지닌 취향이나 애착은 당대에 보편적으로 통용되던 것과 약간 차이가 발견된다. 즉, 화자의 취미는 구체적으로는 당대에 일반적으로 통하던 ‘후천역’(後天易)이 아니라 ‘선천역’(先天易)이었던 모양이다. 본시 ‘선천’(先天)이란 용어는 『주역』 건괘(乾卦) ‘문언전’(文言傳)의 “하늘에 앞서 해도 하늘이 어기지 아니하며, 하늘을 뒤따라 해도 하늘의 때를 받드니”(先天而天弗違 後天而奉天時)에서 비롯되며, 문왕과 주공이 사(辭)를 짓고 공자에 의해 십익(十翼)이 만들어짐으로써 형성된 ‘후천역’(後天易)과 대별되는 ‘원시역’(原始易)을 구분하고자 소강절(邵康節)이 명명하고 직접 선천도(先天圖)를 통해 역리(易理)를 해설하며 천지만물의 생성·변화를 관찰·설명하

였다.²³⁾ 따라서 선천역이란 곧 소역(邵易)이라 불리기도 하지만, 『가현산곡』이 노래 불린 당대에나 혹은 현재에나 우리가 ‘주역’을 떠올릴 때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후천역이며, 그리고 특히 김포에 은거하며 가현산을 노래하고 ‘선천역’에 심취했을 화자의 실제 모습을 떠올릴 때, 현실계에서 이에 부합하도록 손쉽게 그려지는 의방의 대상 역시 공교롭게도 상촌(象村)이다.

일찍이 상촌은 선조의 명을 받아 홍문관 부제학으로 임명되어 고경(古經) 『주역』을 등사하는 임무를 명받아 담당하면서 『주역』 중 특히 ‘선천역’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으며, 이를 도상화한 ‘선천도’야말로 ‘심학’(心學)이라 하였는데, 이를 통해서도 상촌이 평소 ‘선천역’에 심취한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김포에서 ‘선천역’에 심취하며 낙천지명을 추구하는 것으로 형상화된 『가현산곡』(歌絃山曲)의 화자의 모습에도 천리(天理)를 몸에 익혀 천명을 알고 순응하고자 하는 태도가 엿보이는데, 이는 주역의 이념을 추구하는 자가 따를 수 있는 가장 본연의 자세라고 할 것이다. 『주역』 계사상(繫辭上)에는 “성인은 지혜가 만물을 두루 알고, 도가 천하를 구제하므로 지나치게 하지 않는다. 여러 방면으로 행하되 지나치게 하지 않는다. 천리를 즐거워하고 천명을 안다”(與天地相似 故不違 知周乎萬物而道濟天下 故不過 旁行而不流 樂天知命)라고 하였는데, 『가현산곡』에서 보여주는 화자의 태도는 바로 이러한 낙천지명의 전형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이런 특성을 지닌 구체적 인물 표상을 김포 지역과 결부시켜 볼 때, 역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상촌(象村)임을 알 수 있다. 소역(邵易)에 대한 상촌의 관심은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었지만, 그것의 요체를 제대로 이해하지는 못하였다가 본격적인 연구는 그가 방축되었던 김

23) 김필주(1995), 「소용의 선천역 연구-한대역(漢代易)을 연원으로 한 원시역(原始易) 회복시론」, 『공자학』 1권, 한국공자학회. p. 69. 참조.

포에서 생활하던 시기에 이루어졌다.²⁴⁾ 이는 갑인년 김포 유배 생활 중 ‘감지와’(坎止窩)를 만들고 지내던 동안에 남긴 글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

갑인년에는 산기슭에 집을 지어 못을 파고 나무를 심고는 그 처를 ‘감지와(坎止窩)’라고 명명한 뒤 깊이 들어앉아 나오지 않은 채 초연히 물외(物外)에 노닐면서 도서(圖書)를 좌우에 두고 깊은 이치를 탐구하는 데 온 힘을 기울였다. 하루는 《성리대전(性理大全)》에 수록된 소자(邵子 소옹(邵雍))의 《황극경세서(皇極經世書)》를 가져다 몇 번 보는 순간 홀연히 개오(開悟)하고 마침내 상수(象數)를 궁구하여 《선천규관(先天窺管)》을 저술하였는데, 뒤에 《소자대전(邵子大全)》을 연경의 저자 거리에서 사서 비교해 보니 서로 들어맞지 않는 것이 없었다.²⁵⁾

그러나 「가현산곡」에서와 같이 ‘낙천지명’을 추구하며 살고자 하는 화자에게도 현실계에서 억울하게 방축된 원망이 전혀 없을 수는 없다. 유가(儒家)의 이념은 지극히 현실적인 것이므로 관계에서의 경세제민을 가능케 하는 직접적 행동의 원칙이 되어줄 수 있지만, 복잡한 정치적 상황 속에서 빈번한 출·처의 갈등과 고민을 매번 유가에만 의탁하자면 그 울분과 인간적 격정은 해소될 곳이 없다. 따라서 관계에서 방축되어 삶의 극단적 변화를 경험할 때, 이에 대한 울분을 해소하고자 우리 선조들

24) 이에 대해서는 (박해남(2005), 「상촌 신희 문학의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박사논문), p. 45./ 김은정(2010), 「17세기 초 문학작품의 역학 차용 양상-신희 주변 인물을 중심으로」, 『한국한문학연구』 45권, 한국한문학회) 등을 참조할 것

25) 『象村先生集附錄一』 上 [諡狀] “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領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世子師中公諡狀[張維] 甲寅。築舍於山麓。穿沼種樹。命其居曰坎止窩。深居不出。超然物表。左右圖書。專意探頤。一日取性理大全邵子經世數觀之。忽若開悟。遂窮象數。著先天窺管。後購邵子大全於燕市。參合之。無不契者。

이 주로 기대던 곳이 바로 도가의 자유분방한 정신세계나 『초사』의 격정적이고 감성으로 가득 찬 문학세계였다. 『가현산곡』의 화자 역시 예외는 아니어서 스스로 낙천지명을 추구하고 수양하는 자세를 보이다가도 도가적 세계관과 『초사』에 의탁해 감정적 카타르시스를 분출한다. 특히 다음 구절에서는 『이소』(離騷)가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강니를 슬궂 킌야 고국을 브라보니
 강도는 유신희야 떼를 아라 왕넉흔다
 둥화는 어딤가고 구의만 가련느고
 니소의 기픈 쓰들 오늘야 알리로다

강가를 거닐며 고국을 바라보았을 굴원의 행동은 곧 한강의 하류인 김포 조강(祖江)이 내려다 보이는 가현산에서 임금이 계신 한양을 바라보았을 화자의 처지를 연상케 한다. 또 “둥화는 어딤가고 구의만 가련느고”에서 ‘중화’(重華)는 곧 순(舜) 임금의 이름이니, 순임금께 하소연하고자 하나 임금은 만날 수 없고 구의산(九疑山)만 가리워져 있다는 것이며, 이는 간신의 모함을 받고 맥라수 강변을 걷던 굴원의 억울한 상황으로 자신의 처지를 빗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답답한 상황 속에서 화자는 굴원과 같이 맥라수에 뛰어들거나 할 생각은 하지 않는다. 오히려 화자는 죽음을 택한 굴원과 달리 영원한 삶을 사는 도가의 신선이 되는 삶을 추구한다. 바로 이 점은 상촌의 『방가행』(放歌行)에서 “가현산하소동천/유객비속환비선”(歌絃山下小洞天/有客非俗還非仙)이라 한 대목과도 이미지가 통하는 측면이다. 또 『방가행』 후반부분 역시 도가의 신선 모티프를 차용하여 시상을 진행하는 방식에서 공통점을 보여주고 있다.

샤양이 직산하고 석금이 도라오니	문득 신선의 방술을 구하고자 하여 ²⁶⁾
일곡요금에 각회를 뒤 알소니	단로로 시험 삼아 해산 꼭대기에 나아가니
홍딘다루흐니 원유를 어이말리	봉래산 방장산이 꿈속에 들어오네
강결청도의 난학이 기도론다	형신이 조용하고 정혼이 전일해지매
단정을 혼자 먹고 다향을 디키니	단련한 얼굴 푸른 머리털 어이 그리 고운고
건곤이 내몸이라 일월이 버디로다	남아는 마음을 온전히 지키는 게 귀중하니
희상반도는 몇번을 여단말고	죽은 제갈량 산 조여가 누가 더 훌륭한가
봉늬청천을 손구며 헤리로다	산꽃은 만발하여 나를 위해 아름답고
장성도 슈고롭다 봉안을 견훤시고	산새는 지저귀며 날 위해 고운 맵시 보이네
물지브계는 견주어 스므흐리	심신을 단련하면 수명을 연장할 수 있건만
홍몽을 헤티니 벽녀이 진동흐고	몸 밖의 뜬 이름은 말단의 일일 뿐이라
옥희를 좇블로니 거름마다 년화로다	한가히 학창의 입고 난새를 타고서
두어라 딘세부유는 날락들락 흐느다	내려다보니 속세의 인간들이 벌레 같구려

「가현산곡」에서 “단정을 혼자 먹고 다향을 디키니/건곤이 내몸이라 일월이 버디로다”라는 신선이 되기 위한 수양의 방법과 이를 통한 천지 일월과의 합일은 「방가행」에서 신선의 방술을 통해 도달한 “형신이 조용하고 정혼이 전일해지매/단련한 얼굴 푸른 머리털 어이 그리 고운고”(形神靜寂精魄專/練顏綠髮何芳鮮)라는 경지의 표현과 상통한다. 또 “희상반도는 몇번을 여단말고/봉늬청천을 손구며 헤리로다”라는 구절에는 3천년에 한 번씩 열매를 맺는 반도(蟠桃)와 도교의 봉래산 모티프를 통해 장생불사와 선경의 이미지를 보여주는데, 한시에서도 역시 “봉래산 방장산이 꿈속에 들어오네(蓬萊方丈魂騰騫)<…>심신을 단련하면 수명을 연장할 수 있건만/몸 밖의 뜬 이름은 말단의 일일 뿐이라(胎中鍊息生可延/身外浮名蹄與筌)”라는 구절을 통해 장생과 봉래산의 이미지가 비스

26) <…> 玉筍却欲求冥詮/丹爐試就海山顛/蓬萊方丈魂騰騫/形神靜寂精魄專/練顏綠髮何芳鮮/男兒寸地貴自全/死葛生蝨定孰賢/山花爛熳爲我妍/山鳥問關爲我媿/胎中鍊息生可延/身外浮名蹄與筌/閑披鶴氅駕鸞軒/俯視閻閻如蚰蜒.

하게 표현되고 있다.

한편 앞서 『가현산곡』에서는 사계를 표현하면서 춘사에서 『병가』 491으로 실린 김천택 명의의 시조 작품을 차용한 흔적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 선계의 생활을 표현하는 지점에서 또 다시 그러한 사례가 나타난다. “장싱도 슈고롭다 봉안을 견훤시고/물지브제는 견주어 모습허리”라는 구절은 역시 다음의 작품을 차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莊生의 흥는 일이 아마도 多事하다
斥鷃 大鵬을 비겨므슴 흥렷튼고
두어라 物之不齊를 견훤 줄이 이시라

金天澤, 靑珍283, 이삭대엽

앞서 인용된 시조작품 “松林에 客散하고 茶鼎에 烟歇커늘~”과 마찬가지로, 이 작품도 역시 가집에는 작자가 김천택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역대시조전서』에 의하면 이번에는 아예 다른 가집과 공출관계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가현산곡』에서 이렇듯 김천택의 이름으로 된 시조들이 가사의 텍스트로 차용되기는 하지만, 정작 그 원천을 살펴보면 앞서와 마찬가지로 『병가』와 『해주』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거나, 아니면 정작 김천택의 『청진』²⁷⁾에서 찾아볼 수 있는 작품은 공교롭게도 타 가집에서 공출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더구나 『청진』 283번의 경우 가사에 차용된 텍스트와 『청진』 수록 작품의 텍스트에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다른 가집에 공출된 적이 없는 『청진』만의 독출 작품까지 알고 있었던 인물이 『가현산곡』을 창작한 것이라면, 왜 『청진』에 실려 있지도 않은 『병가』, 『해주』 수록 김천택 명의의 작품까지 적극 반영하려 한 것일

27) 『청구영언』(진본). 이하에서는 『청진』으로 약칭함.

까? 얼핏 보면, 작가는 김천택의 작품에 대한 어떤 애호 의식이 있었던 인물이 아닌가 여겨질 수도 있는 대목이다.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가현산곡」에 유난히 빈번하게 김천택으로 記名된 비유형 시조가 반영되는 양상은 현재의 『청진』이나 『병가』, 『해주』가 아닌, 무엇인가 또 다른 경로를 통해 유입된 당대 시조 텍스트의 향유 루트를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의심을 품어보지만, 좀 더 연구가 필요한 대목이다.

한편, 「가현산곡」의 도입부에서 노래의 전개과정에 따라 몇 개의 구를 추려보면 상촌의 「간서」(看書)라는 절구와도 상당부분 유사성이 있음을 알게 된다.

<p>“황냥이 다 니그니 긴 꿈을 씨뎛던가” <……> 청녀당 빗기 잡고 학창포 니미치고 남계 ㄴ는 길로 동학을 촛자가니 동능과디는 이거시 거괴로다 <……> 두어라 던세부유는 날락들락 흐느다</p>	<p>「간서(看書)」²⁸⁾ 황량밥 지을 동안 꾸어보는 일장의 꿈 귀 밑에는 서리 날고 가득한 건 비방이더라 남계가로 돌아가서 문 닫아걸고서는 인간에서 못 보던 책 그것이나 다 보련다</p>
---	--

황량(黃梁) 고사는 중국의 전기소설인 『침중기』에 등장하는 이야기이며, 당나라 시절 노생(盧生)이라는 사람이 한단(邯鄲) 땅의 주막에서 여용이라는 도사에게 베타를 빌려 잠깐 잠이 들었다가 꿈에 80살까지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다 깨었는데, 잠들기 전 주막 주인이 짓고 있던 조밥이 채 익지도 않았더라는 내용이다. 지극히 도가적인 내용의 이야기에 더해져 가사와 한시의 화자는 모두 남계(南溪)로 가겠다고 한다. 당 현종 시절 유장경(劉長卿)의 ‘남계 상산 도인의 거처를 찾아’(尋南溪常山道人隱

28) 신희(2008), 『신편국역상촌신희문집』 3, 민족문화추진회, 한국학술정보. p. 309. “炊熟黃梁一夢餘/鬢飄霜雪誘盈車/歸來閉戶南溪畔/看盡人間未見書.”

居)²⁹⁾에는 남계가 마치 선경과 같이 묘사되어 “마주 대해도 할 말을 잊어버리는 곳”(相對亦忘言)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위의 인용문에서 ‘남계’ 역시 바로 그러한 속세와 단절된 선계의 이미지를 표상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가사와 한시 모두 현실계에 대한 화자의 태도는 ‘진세부유(塵世浮游)나 “귀 밑에는 서리 날고 가득한 건 비방이더라”(鬢飄霜雪謗盈車)라 하여 지극히 비판적 태도를 보이는 면에서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가현산곡』에 반영된 화자의 모습은 현실 비판 의식을 지닌 채 가현산에 은거해 살면서도 선천역에 대한 침잠을 통해 자신만의 도를 즐기며 낙천지명을 추구하는 인생관을 지닌 인물을 의방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의방의 대상을 현실계에서 찾아 보자면, 조선시대 김포 지역 대표적 문인인 상촌 신희를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5. 맺음말

지금까지 『가현산곡』을 통해 화자의 모습이 상촌 신희의 생애와 상당 부분 흡사한 측면을 지니고 있음이 드러나며, 특히 상촌의 삶을 통해 본 작품을 파악할 때 더욱 그 공감의 깊이와 폭을 확대할 수 있음을 논급했다. 특히 상촌의 문집 속 작품들과 『가현산곡』의 표현상 유사부분들을 함께 비교하여 분석했으며, 상촌의 생애와 사상에서 보여준 특징들이 『가현산곡』에서도 흡사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논증했다.

물론, 이 글을 읽는 과정에서 한 가지 분명히 경계해야 할 것은, 성급하게 『가현산곡』의 작자를 상촌으로 건강부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29) “一路經行處/莓苔見履痕/白雲依靜渚/春草閉閑門/過雨看松色/隨山到水源/溪花與禪意/相對亦忘言.”

주지하다시피, 지식의 생산에서 명확한 증거가 없는 주장은 의미를 얻지 못한다. 따라서 이 글을 통해 말할 수 있는 논지의 한계는 다만 이 작품을 이해하는 데에 어느 특정인의 생애를 염두에 두는 것이 작품에 드러난 표현과 그 맥락을 파악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됨을 밝혀 두는 정도일 뿐이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해당 작품을 통해 펼칠 수 있는 문화적 상상력의 깊이와 범위가 더욱 풍부해지리라고 기대한다.

한편, 요즘 들어 전국적으로 각 지역의 문화유산을 가꾸고 풍부하게 만들기 위한 발군의 노력들이 활발한 실정이다. 때문에 지역 문화에 대한 분석과 의미부여가 과거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도 또한 김포 지역을 배경으로 한 「가현산곡」의 의미는 그 작품 분량에 비해 그리 적지 않으리라 생각된다.

더구나 김포 가현산이라는 특정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적 스토리텔링의 과정에서 과거로부터 현재까지도 상춘 신흠은 매우 중요한 인물이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따라서 흡사 그의 인생을 의방한 것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화자가 노래하는 「가현산곡」이라는 작품은 해당 지역의 문화유산을 풍부하게 할 뿐 아니라, 우리 문화계에서도 중요한 인물인 상춘에 영향을 받은 작품을 더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닐 것이다. 이 점에서 이 글의 의의를 찾아보고자 한다.

참고문헌

- 김영순 외(2011), 『지역문화 콘텐츠와 스토리텔링-검단의 기억과 이야기』, 북코리아.
- 김용철(2012), 「문명번역으로서의 전고와 만고가」, 『우리어문연구』 37집, 우리어문학회.
- 김은정(2010), 「17세기 초 문학작품의 역학 차용 양상-신흙 주변 인물을 중심으로」, 『한국한문학연구』 45권, 한국한문학회.
- 김주백(1986), 「상촌 시의 갈등과 귀거래 양상」, 『한문학논집』 제4집, 단국대학교 한문학회.
- 박해남(2005), 「상촌 신흙 문학의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논문.
- 성기옥(1996), 「신흙 시조의 해석 기반-「방옹시여」의 연작 가능성」, 『진단학보』 81호, 진단학회.
- 손승철(2002), 「상촌 신흙 선생의 생애와 사상」, 『강원문화사연구』 제7권, 강원향토문화연구회.
- 이종묵(2003), 「신흙과 가현산」, 『문헌과 해석학』 25집 겨울호, 문헌과 해석사.
- 정익섭(1964), 「구계 박이화의 가사고」, 『한국언어문학』 2집, 한국언어문학회.
- 정일남(2011), 「상촌 신흙의 글소 수용양상」, 『한문학보』 24집, 우리한문학회.
- 유성준 편저(2002), 『초사』, 문이재.
- 「김포읍지」, 『규장각 한국지리지총서』, 한국학문헌연구소, 아세아문화사, 1985.
- 『금포지도』(규장각소장).
- 『고비유적』(檀國大學校 울곡기념도서관).
- 신흙(2008), 『신편국역상촌신흙문집』 1~7권, 민족문화추진회, 한국학술정보.
- 마샬 맥루한, 임상원 역(2001), 『구텐베르크 은하계』, 커뮤니케이션 북스.

원고 접수일: 2013년 10월 31일

심사 완료일: 2013년 11월 25일

게재 확정일: 2013년 12월 3일

ABSTRACT

A Study on “Gahyunsangok” and Sangchon’s Image of Retirement in Gimpo

Jeon, Jae-Jin

This essay was about “Gahyunsangok”(Song of Gahyun Mountain) that is included in *Gobiyougo*, a manuscript in the collection of Dankook University Museum. Although little is known about the author or the time that the song was created, we can surmise that it is a record of Joseon nobility, through the evidence of the custom in which descendants wrote down their ancestor’s biographies.

The ‘Song of Gahyun Mountain’ appears to have a particularly close relation to Sangchon Sin Heum who was a government official and famous poet. He was a minister during King Seonjo’s reign and he was given the order to protect Prince Youngchang after the death of King Seonjo. But Prince Gwanghae who was step-brother to Youngchang became king and Sinheum was ousted from officialdom for his actions of protecting Prince Youngchang. He went back to the area of his ancestor’s tomb after being expelled from officialdom and his main concern became the Book of Changes for living in Gahyun Mountain. His attitude towards life was to know the order of the heavens and to follow it naturally.

This special quality of such a life can also be found in the ‘Song of Gahyun Mountain’. The speaker of the poem talks about his free life at Gahyun Mountain and how he was satisfied by himself. In addition, the ‘Song of Gahyun Mountain’ is similar to “Banggahaeng”, a poem by Sin Heum. Especially, the introduction of both works share a common feature, such as the paragraph “small town and sky in Gahyun Mountain...” And there is also the common fact that both the speaker of the poem and Sin Heum have an interest in the Book of Changes, are concerned not with posterior changes but native changes. This was a special phenomenon in the Joseon period and not common tendency.

Such an analysis on the song of Gahyun Mountain presented in this paper will act to compliment and enhance studies on the work of Sin Heum, and the cultural contents of Gimpo, Gyonggi Province.